

**보도자료**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2014. 8. 18(월)

<자료문의> ☎ 2014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최희연 사무국장 02-563-2014  
미디어 센터 : 02-6288-6342, 02-6288-6309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다채로운 문화행사 선보여  
- 대중강연, 바둑과 수학, 수학 영화 상영 등 -**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일반대중이 평소 어렵다고만 느끼는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수학 문화행사를 무료로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운영 중이다.
- 지난 13일 세계 최고의 펀드매니저로 알려진 제임스 사이먼스 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19일 바둑 프로그램과 수학영화 상영회, 20일 수학대중화에 힘쓴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릴라바티상 수상자의 강연 등은 무료 사전접수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조기 마감되었다.
- 또한 같은 기간에 열리는 3개의 수학 관련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수학자대회 전시장에서 3D 수학조형물을 포함한 대중전시,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생각을 더하고 재미를 나누는 수학’ (6월 30일~8월 22일),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수학과 예술’ (2014년 8월12일~2015년 1월 11일)이 열리며, 모두 현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 이들은 기존의 학술대회에서 찾기 힘든 대중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세계수학자대회 문화위원회 조직위원장이인 강석진(서울대) 교수는 “이번 기회로 대중들이 수학을 물이나 공기처럼 언제나 사람들 곁에 있는 친근하고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대회기간 중 19일에 열리는 바둑 프로그램은 수학과 바둑의 관계를 풀어내는 바둑강연과 이창호 9단을 포함한 5명의 국수(國手)급 프로기사와 9개국 수학자들의 다면기 대국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다면기 대국의 해설과 묘수풀이를 진행할 것이다.

○ 바둑강연에서는 이병두(세한대 바둑학과) 교수가 바둑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소개하고, 김찬우 6단이 바둑의 기력 체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며, 김용환 박사가 수학의 한 분야인 조합론적 게임 이론을 이용하여 바둑의 끝내기 문제를 설명한다.

○ 다면기 대국은 다섯 명의 프로 기사와 9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이스라엘, 독일, 영국, 마케도니아) 25명의 수학자들과의 1:5 대결이다. 다면기 대국에 참가하는 프로기사는 잉창치 배를 차례대로 석권하며 한국 바둑의 시대를 연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와 한국 최초의 여성 9단인 박지은, 현 한국기원 기사회장인 김효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이다. (기사들의 약력은 한국기원 기사 정보 참조: <http://baduk.or.kr/info/player1.asp>)

○ 다면기 대국은 해설과 묘수풀이를 중심으로 조혜연 기사와 최동은 기사가 진행한다. 영어로도 통역되어 세계에 한국 바둑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9일 수학영화상영회는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나는 어떻게 수학을 싫어하게 되었나(How I came to hate math, 원제: Comment j'ai détesté les maths)” 를 상영한다. 이 상영회에서는 영화 속 등장인물도 직접 만날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 2010년 필즈상 수상자인 세드릭 빌라니(Cédric Villani)가 영화를 직접 소개하고 영화 상영 후에는 전 프랑스 고등과학연구소 소장이자 유럽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장피에르 부르기농(Jean-Pierre Bourguignon)과 전 오버블파크 독일수학연구소 소장이자 수학대중화 프로그램인 이매지너리(IMAGINARY)

과학자문위원인 거트마틴 그로이엘(Gert-Martin Greuel)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동 영화는 프랑스의 Olivier Peyon 감독의 2013년 작품으로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수학 교사, 수학자 등을 인터뷰하면서 왜 사람들이 수학을 지루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특히 70년대 베이비붐 이후 이루어진 이른바 ‘신수학 개혁’이 어떻게 학생들이 수학과 멀어지게 했는지 짚어본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도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학생들 역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명 수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학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식을 모색한다.


- 붙임
1. 바둑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필
  2. 수학영화 상영회 진행자 프로필
  3.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 안내

사진	성명	현직	주요 약력
	이병두	세한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클랜드대 철학과 박사 취득 (2000)</li> <li>바둑에서의 다전략학습, 추리와 탐색 관련 박사 논문 발표</li> <li>컴퓨터의 인공지능 바둑 전문가</li> </ul>
	김찬우	6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8년 제20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우승</li> <li>권갑용 7단 문하</li> <li>현재 가장 강력한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은별(Silverstar)을 개발중</li> </ul>
	김용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조합론적 게임 이론의 대가인 엘윈 벌리캠프 교수의 지도로 박사 학위 취득</li> <li>바둑을 분석하는 유력한 수학적 이론 가운데 하나인 조합론적 게임 이론의 전문가</li> </ul>
	서봉수	9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1년 동양컵 획득</li> <li>바둑문화상 수훈상 수상 4회(1980,81,82,93년).</li> <li>1994년 통산 1,000승 달성</li> </ul>
	유창혁	9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대회 그랜드슬램 달성(1993년 제 15회 후지쯔배, 1996년 응씨배, 2000년 삼성화재배, 2001년 춘란배, 2002년 LG배)</li> <li>1984년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준우승. 입단</li> </ul>
	이창호	9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최연소타이틀획득(13세, 제8기 바둑왕전)</li> <li>최연소 세계챔피언(16세 6개월, 제3기 동양증권배)</li> <li>통산최다대국(1989년, 111국). 통산최다연승(41연승). 통산최고승률(78승 12패, 86.7%). 통산최다승(90승)</li> </ul>
	박지은	9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 제2회 궁룡산병성배 세계여자대회 우승</li> <li>2013년 04.28 제2회 화정차업배 우승(주장 개인승수 2승1패)</li> <li>한국 최초의 여성 9단</li> </ul>

사진	성명	현직	주요 약력
	김효정	2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제4기 부안여류기성전 8강</li> <li>■ 2011년 07.13 한국기원 이사 선임(제93회 한국기원 상임이사회 의결)</li> <li>■ 2013년 프로기사회 회장 당선</li> </ul>
	조혜연	9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훈현, 이창호에 이어 역대 최연소 입단기록 3위(11세 11개월).</li> <li>■ 2003~2004년 한국여자바둑석권(2003년 제 9기 여류국수, 2004년 제5기 여류명인전 우승)</li> </ul>
	최동은	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제2회 그린피아 명인배 유단자부 우승, 서울시장배 여성최강부 우승.</li> <li>■ 2003년 제5회 여류명인전 본선진출</li> </ul>

**붙임2****수학영화 상영회 진행자 프로필**

	성 명	세드릭 빌라니 (Cédric Villani)
	소 속/직 위	프랑스 에콜 노말 리옹대 교수, 프랑스 앙리 푸앵카레 연구소장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필즈상</li> <li>▪ 2009 앙리 푸앵카레상, 페르마 상</li> </ul>

	성 명	장피에르 부르기농 (Jean-Pierre Bourguignon)
	소 속/직 위	전 프랑스 고등과학연구소 소장이자 유럽연구위원회 위원장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RS 선임연구원</li> <li>▪ 전 EuroScience Organisation (2002-2006) 위원회 멤버</li> <li>▪ 2004년 이래 EuroScience Open Forum(ESOF) 위원</li> </ul>

	성 명	거트마틴 그로이엘 (Gert-Martin Greuel)
	소 속/직 위	전 오버볼파크 독일수학연구소 소장, 수학대중화 프로그램인 이매지너리(IMAGINARY) 과학자문위원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ERCOM 회장 (European Research Centres on Mathematics) 2010-2013</li> <li>▪ 2012년부터 현재 Zentralblatt MATH 편집장</li> </ul>

<b>붙임3</b>	<b>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 안내</b>
------------	------------------------

○ 바둑 프로그램

일정	장소	내용
8월 19일 15:00-18:00	코엑스 4층 401호, 401호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둑강연 (바둑과 수학) : 이병두 교수, 김찬우 기사, 김용환 박사</li> <li>- 바둑 이벤트 (묘수풀이) : 조혜연 기사, 최동은 기사</li> <li>- 바둑 다면기 대국 (프로 바둑기사와 수학자와의 1:5 대국)</li> </ul>

○ 수학 영화 상영

일정	장소	내용
8월 19일 17:30-20:30	코엑스 3층 Hall D1	<p><b>'How I came to hate math'</b> (원제: Comment j'ai détesté les ma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필즈상 수상자인 세드릭 빌라니, 장피에르 부르기농과 같은 세계적인 수학석학과 함께하는 수학 영화 여행</li> <li>- 영화의 실제 등장인물인 세드릭 빌라니와 장피에르 부르기농, 거트마틴 그로이엘이 직접 진행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li> </ul>